

깊어가는 가을 인문학 앙상블 축제

깊어가는 가을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축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코로나 시대 일상의 회복을 지원하고 다채로운 강연과 공연을 매개로 인문적 감성을 충전하자는 취지다.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 가족커뮤니티 사업단 '노둣돌'과 철학연구소, (사)인문지행이 각기 준비한 인문주간 행사 인문학 앙상블이 그것. 이들 인문학 프로그램은 시민이 참여하고 인문생태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전남대 노둣돌과 철학교육센터는 제16회 인문주간을 맞아 31일까지 '코로나 시대, 인문학의 길-일상의 회복'을 주제로 인문학연을 펼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민이 주도하는 '책으로 사담과 사담을 잇다'와 '시 백선 낭송회'. 책과 사람, 시를 매개로 인문 정신을 공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미얀마-시리아 사태 등 국가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와 인권의 의미를 생각하는 '국가란 무엇인가' 연속 강연을 비롯해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한 강연도 열린다.

또 시민이 창작의 주제로 참여하는 '시민미술학교'와 '메타버스 시민미술제', 인문예술 공간을 탐방하는 '예술인문공간을 부탁해 공·부·해', 지하철을 타고 역사 속으로 공감해 들어가는 '인문반딧불이'도 기대를 갖게 한다. 광주시민 인문 동아리 현재를 짚어보는 '작은 인문학' 등 이론과 실천을 토대로 한 인문생태 구현 활동도 눈여겨 볼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인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 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 '철학큐레이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단' 등 3개 BK사업단이 참여해 '인문학 학문후속세대 포스터-큐레이션 한마당'이라는 이름의 포스터 발표회를 가진다. 아울러 '영어권 연구단' 대학원 학생들이 중심이 돼 기획한 '미얀마의 봄', '우즈벡 다양', '5.18인터뷰' 등 '지역-커뮤니티 문화제'도 선보인다.

인문지행은 29-30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0년후그라운드'에서 인문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인



이승우 작가



김상봉 교수



김희정 감독



박태구 화가

● 전남대 '노둣돌'·철학연구소 국가폭력 사례 중심 인권 강연 시 낭송회·시민미술학교도

문정신의 실현과 실천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문학과 철학, 영화 등 인문학강연과 다채로운 공연이 어우러진다.

29일 오후 4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이승우 소설가를 만난다. 이 소설가로부터 작가 세계관이 집약된 작품 '강탕'에 대해 듣고 대화한다. '강탕'은 2019 오영수문학상 수상 작품이다.

강연과 함께 할 공연은 기타리스트 서만재와 토키토 준코의 2클래식기타 연주다.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음악원에서 기타를 전공한 서만재와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토키토 준코는 '아란후에즈 협주곡' 등 클래식기타 연주를 펼칠 예정이다.

이어 '시낭독의 즐거움: 시를 읽는 밤, 너를 만나다' (오후 7시)는 시민의 주도로 참여로 이루어진다. 인문지행 심숙숙 대표가 진행을 맡으며,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읽고 나누고 싶은 시를 사전 신청해서 낭독한다. 시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우리'가 되는 경험을 공유하자는 의미이며 한상면·박상언·장혜란의 재즈 트리오가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을 준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인문지행 이승우 작가·김상봉 교수 강연 클래식 연주·재즈 등 공연도

30일에는 영화, 철학, 미술을 모티브로 행사가 펼쳐진다.

오후 1시에는 영화 '프랑스 여자'로 주목 받고 있는 김희정 감독이 영화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울러 '시네마 천국', '찌고이네르 바이젠' 등을 광주시립교향악단에서 활동하는 박신영·정수지·지해나의 클래식트리오가 연주하며 팬플루티스트 윤미정이 팬플루트의 연주를 맡는다.

오후 4시에는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가 '우리는 아직도 신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목직한 질문과 어울리는 음악공연도 준비돼 있다.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한 김기웅·나인국·최원영이 2첼로와 피아노 협연으로 헨델과 바흐, 쇼스타코비치 등의 음악을 연주한다.

마지막 프로그램(오후 7시)은 한국의 마지막 간판 예술가 박태구 화가를 만나는 시간이다. 박 작가는 간판그림에서 시작해 지금은 위기에 처한 환경을 주제로 생태미술교육에 애쓰고 있다. '비발디의 사계' 등으로 잘 알려진 강명진의 전자바이올린 연주가 곁들여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맛깔난 음식들을 노래로 한 상 차렸어요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8일 광주문예회관

'노래로 차려낸 맛있는 밥상'

광주시립합창단(지휘자 김인재) 제187회 정기 연주회 '맛깔난 우리 식탁'이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맛깔난 우리 음식들을 노래로 한 상 가득히 차려낸 유쾌하고 정겨운 공연이다.

김인재 지휘자는 "해가 지는 늦가를 저녁, 어느 단란한 가정의 소박하고 정겨운 식탁과 둘러앉은 가족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무대"라고 소개했다.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된 무대는 16곡의 합창음악으로 꾸민다.

1부 '구수한 비빔밥', '팔딱팔딱 어물전', 2부 '해질녘 원두막' '그리움의 들녘' '회한의 언덕 저편' '사랑 그 청순함에 대하여' 등 각 주제에 맞게

'맛깔난 우리 식탁'을 구성한다.

1부는 한국인이자 누구라도 좋아할 서민 음식들을 맛깔난 합창음악의 밥상을 무대에 올린다. '김치', '순두부', '된장찌개', '비빔밥', '명태', '산낙지를 위하여', '막걸리송' 등 제목부터 이색적이다. '백김치 파김치 갓김치 동치미 오이 소박이김치', '계란 풍 실파 송송 뽕뽕 꿀꿀찌글', '꽃고추 송송송 썰고 애호박 송송송 썰고' 등 군침 도는 맛깔난 가사와 리듬이 들는 재미를 더한다.

2부는 깊어가는 가을밤 감성을 두드리는 노래들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한다. '가을꽃', '들국화', '사랑하면 할수록', '웃어', '사랑은', '지금 해요' 등 서정적인 멜로디와 가사가 아름다운 곡들을 선사한다.

이왕재(장구), 김민희(해금) 연주자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관람료 전석 1만원, 문의 062-415-520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공연 장면.

서예·고문서 기증 유물 순회전시회

전남대박물관, 다음달 12일까지

서예, 고문서 등 기증받은 다양한 유물들을 볼 수 있는 순회 전시회가 열린다.

전남대박물관(관장 정금희)은 '공유'의 미학을 주제로 11월 12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기증 유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광주전남 국립대학박물관들이 기증받은 유물 40여 점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국립대학박물관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기증을 통한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서예, 회화, 고문서, 민속품 등 4개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에는 실경산수의 대가인 겸재 정선의 '불정대'와 을사조약의 비분함으로 자결한 민영환의 '목죽도' 및 장지연의 '유목', 정조와 고종의 어필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함평에 살던 정호언이 정유재란(1597) 때 피난을 가던 중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쓴 실기 필사본인 '정유피란기'는 임진·정유왜란에 참여했던 적장에 대한 기록은 물론 일본의 정세·지리·풍속 등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문의 062-530-358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선의 '불정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공연 유튜브로 보세요

광주문화재단, 27일 상영

2021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난 19-20일 남구 통기타 거리, 사직공원 양파정·전망타워에서 진행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번 공연 영상을 오는 27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공식 유튜브에서 관람 가능하다고 밝혔다. 침체된 남구 사직동 통기타 거리를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예술가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19일에는 7080 추억의 노래를 주제로 건반싱

어 강숙향 'Fly to the moon', 관악기 2인조(정남호·최진국) '무시로', 버드나무 팀 '사노라면' 등을 공연했다.

20일 공연은 지역 공연단체 11팀 창작곡 무대로 채워졌다. 자연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인디언 수니 '내 가슴에 달이 있다'와 인디밴드 우물안 개구리 '슈퍼스타' 등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올해 마지막 프린지페스티벌은 오는 11월 12일-14일(일)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병행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라이브 카페 공연 장면.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